

|                                                                                   |                                                                                                                           |            |                   |
|-----------------------------------------------------------------------------------|---------------------------------------------------------------------------------------------------------------------------|------------|-------------------|
|  | <b>성균관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b>                                                                                                 |            |                   |
| <b>회 의 명</b>                                                                      | 제34차 성균관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                                                                                                       |            |                   |
| <b>일 시</b>                                                                        | 2021. 11. 22.(월) 15:30                                                                                                    | <b>장 소</b> | 600주년기념관 3층 제1회의실 |
| <b>참석위원</b>                                                                       | 안대회, 안희준, 석창성, 김은상, 박동희, 강보라, 심재용 평의원 /<br>김중환, 정덕영, 오광현 평의원 위임장 제출 (이상 총 10명)<br>※ 이준영 기획조정처장, 최정훈 팀장, 김경일 과장, 조정훈 과장 배석 |            |                   |
| <b>불참위원</b>                                                                       | 전미희 평의원                                                                                                                   |            |                   |

## 1. 개 회

- 석창성 의장이 총11명의 평의원중 7명이 참석하고 3명은 위임장을 제출하였음을 확인하고, 제34차 대학평의위원회 개회를 위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다.
- 석창성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오늘의 안건이 성균관대학교 학칙 개정(안) 심의 1건과 2021학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 및 원금 보존 기금 사용 및 임의기금 전환(안)에 대한 자문 2건임을 확인하면서, 전차 회의록을 묵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다.
- 강보라 평의원이 회의록 2페이지 평의원 이름 뒤 ‘평의원’ 직급이 빠졌음을 지적하고, 김경일 과장이 수정하겠다고 하다.
- 안대회 평의원이 직전 회의에서 김은상 평의원이 제안한 비전2030 홍보용 소책자 제작 추진 현황을 묻고, 이준영 기획조정처장(이하 기조처장)이 이미 만들었다고 하고 조만간 본격적으로 배포할 계획이라고 하다. 안대회 평의원이 홈페이지의 비전2030관련 내용을 찾아보기 쉽지 않다고 하고, 기조처장이 아직 본격적으로 홈페이지에 완전히 반영되지는 못한 것 같다고 하다.
- 석창성 의장이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비전2030 영상을 보니 분량이 방대하고 서론이 길어서 본 내용까지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중요한 내용만 따로 편집하여 올리는 것이 어떨지를 묻고, 기조처장이 제안하신 내용 반영하겠다고 하다.
- 안대회 평의원이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핵심적인 부분만 따로 뽑아서 만화 형식으로 10개 컷 정도로 내용 구성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하고, 기조처장이 타저 형식으로 3분에서 5분 정도의 짧은 영상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를 의장님과 안대회 평의원의 제안을 반영하여 새로이 만드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하다.
- 석창성 의장이 강보라 평의원이 지적한 수정사항 반영하기로 하고, 그 외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전차 회의록을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하다.

## 2. 성균관대학교 학칙 개정 (안) 심의

- 석창성 의장이 학칙 개정(안) 심의를 상정한다고 하고, 기조처장에게 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 기조처장이 대학원 학생정원 조정사항 및 기타 변경사항 반영 부분에 대해 회의 자료를 요약하여 설명하다.

- 석창성 의장이 각 평의원들에게 의견을 구하다.
- 강보라 평의원이 회의자료 6페이지의 ‘별표2’ 라는 단어 앞 괄호가 없는 것은 오타인지를 묻고, 기초처장이 수정하겠다고 하다.
- 석창성 의장이 바이오헬스규제과학과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기초처장이 규제과학이라는 각론이 현재 각광을 받고 있는데 각종 규제 상황 속에서 선제적으로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문분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하다.
- 안희준 평의원이 학과수가 동일한 부분에 오류가 있는 것인지 묻고, 기초처장이 그 전 교무위에서 학과 개폐 심의 과정에서 숫자의 변동을 미처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이번에 반영한 것으로 오류가 아니라고 하다.
- 안희준 평의원이 Master of Science in Business Analytics의 이수 학점 증가가 비용 증가를 수반할 수 밖에 없으므로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는지를 묻고, 기초처장이 등록금 책정은 수업 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를 반영해서 책정하는데 이번 사항에서는 변동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하다.
- 석창성 의장이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 학과 명칭 명명시 좋은 단어들을 조합하다보니 학과설치의 목적이 직관적으로 전달되지 않고 다소 복잡한 느낌을 주는 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고 하고, 기초처장이 규제과학이 다소 낯설어 보이긴 하나 현재 어느 정도 상당한 지위를 확보한 학문분야라고 설명하다.
- 기초처장이 법학전문대학원 계절수업 운영 근거 마련 건에 대해 회의자료를 요약하여 설명하다.
- 안대회 평의원이 부칙의 별표10의2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고, 기초처장이 이 부칙은 앞서 보고한 학생정원 조정사항 및 기타 변경사항 반영 안건과 방금 보고한 법학전문대학원 건까지 총2개에 대한 부칙 부분인데, 별표10의2는 사실 이 법전문건과는 관계가 없고 그 윗줄인 시행시기가 관련된 사항이나 회의 자료 작성 과정에서 부칙 전체의 변동사항을 표시해야 하는 관계로 부득이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하다.
- 안희준 평의원이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선행적으로 이미 시행한 것을 사후 후행적으로 추진하는 모양새로 보인다고 하고, 기초처장이 학칙 개정은 규정심의위원회와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원회를 거치는 과정 속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현실 여건상 간혹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하고 대학평의원회에 올리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논란이 있는 경우 통과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문제소지를 미연에 최대한 방지하고자 하나 가급적 이러한 상황은 발생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며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하다. 만약 대학평의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앞의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함을 분명히 하다.
- 박동희 평의원이 모든 규정이 아닌 학칙 개정에 대해서만 대학평의원회 인준을 거치는 것이 아니냐고 묻고 기초처장이 이를 확인하다. 박동희 평의원이 대학평의원회를 통과하더라도 이사회를 거쳐야 최종 확정되는데 이사회 개최 주기를 감안한다면 시간적 제약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하다.
- 석창성 의장이 심의 사안에 대한 이견이나 기타 의견이 없는지 묻고,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 후 평의원 전체의 동의하에 성균관대학교 학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다.

### 3. 2021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자문사항

- 석창성 의장이 두 개의 자문안 중 첫번째 사안인 2021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자고 하고, 최정훈 예산기획팀장(이하 예산팀장)이 회의자료를 요약하여 설명하다.
- 김은상 평의원이 의대 교수 지급 방식 변경의 배경을 묻고, 예산팀장이 금년도 국정감사에서 임상교원 급여를 전액 병원에서 지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서 교육 부분은 학교가 진료 부분은 병원이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다.
- 안희준 평의원이 법인전입금이 감소된 것인지 묻고, 예산팀장이 교원 보수 변동에 따라 이에 비례하여 법정부담금이 줄어든 것이라고 하다.
- 안대회 평의원이 문화재청에 납부한 도로 사용료를 앞으로도 매년 내야하는 것인지 묻고, 예산팀장이 그렇다고 하다. 안대회 평의원이 이에 대해 학교가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우려를 표하고, 예산팀장이 정문 이전 등 여러 대책을 고민하였다고 설명하다.
- 기조처장이 국유지 사용료 납입 면제 시도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 중이나, 문화재 인접지인 관계로 여러 가지 대안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설명하다.
- 안대회 평의원이 소유권이 성균관인지 문화재청인지 궁금하다고 하고, 만일 해당 도로의 소유권이 문화재청인 경우 국유지이므로 대학에 불하가 가능한데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확인된 것은 문화재 관련 법 등의 사유로 아예 법적으로 불하가 불가해서 그런 것일 수 있다고 하다. 예산팀장이 우리대학이 해당 토지에 대한 매입도 검토해 보았으나 불가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하다.
- 김은상 평의원이 삼성창원병원 장애인 부담금의 내용을 묻고, 예산팀장이 삼성창원병원이 우리 대학 부속병원이므로 관련법령에 의해 일정 수준의 장애인 고용이 미달되면 이에 대한 부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하다.
- 안희준 평의원이 회의자료에 언급된 ‘크레듀’가 2016년에 사명을 ‘멀티캠퍼스’로 개정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해서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하고, GSB-캘리 공동운영경비에 대한 설명과 매년 캘리에 송금하는 규모가 어느정도 되는지 묻다. 예산팀장이 매년 10억에서 15억 사이를 송금하고 있다고 하고, GSB-EMBA 학생들의 복수학위과정 공동운영 경비라고 하다.
- 박동희 평의원이 문화재청 건에 대해서는 학교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추후 담당부서인 자산관리처에 자료를 받아 평의원들께 해당 과정과 대책 등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하다. 예를 들어 원 부과된 금액을 대학에서 다각도의 노력으로 원 부과 금액에 비해 많이 절감된 것 등을 들 수 있다고 하다. 예산팀장이 부과 자체는 패소로 인해 이행해야할 사항이므로 어쩔 수 없지만 자산관리처에서 문화재청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많은 비용을 절감했고 추후 이에 대해 자료를 정리하여 보고하겠다고 하다.
- 안희준 평의원이 코로나로 인해 해외 교류가 제한된 상황에서 코이카 지원금이

늘어난 이유와 후면 부지 건축 관련 계획 설명을 요청하다. 예산팀장이 후면부지의 토지 매입은 추가로 하지 않기로 하였고, 내년 8월 경이면 착공 가능하도록 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다.

- 안희준 평의원이 후면 부지 설계 과정에 있어 경영대 사용 공간에 대해 경영대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고, 석창성 의장이 Fab Lab 건축비에 대해 묻고 기초처장이 아직 설계가 변경되는 과정인 관계로 건축비가 미집행된 것이라고 하다. 예산팀장이 해당 예산은 내년으로 이월되어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할 것이며 코이카 지원금의 경우도 작년 미집행 금액이 이월된 것이라고 하다.
- 석창성 의장이 기타산단전입금 증가에 대한 사유를 묻고, 예산팀장이 미래융합연구 5억과 국고사업인 그랜드아이시티사업 8.4억과 해외연구 신진연구자 등 산단연구지원사업 등 산단 재원으로 연구 확대에 학교로 입금된 전입금이라고 하다.
- 석창성 의장이 첫 번째 자문사항에 대한 추가 질문이 없으면 두 번째 자문사항에 대한 설명을 예산팀장에게 요청하고, 예산팀장이 회의자료를 요약하여 설명하다.
- 김은상 평의원이 시간강사료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이 시간강사 인원수가 늘어난 것인지를 묻고 예산팀장이 당초 시간강사 예산을 적게 예측한 부분이 있고 교원 중 중도퇴직자에 대한 수업을 시간강사가 담당하게 된 것과 시간강사 관련 국고사업도 일부 반영되었을 것이라고 하다.
- 안대회 평의원이 타 대학 대비 시간강사료 수준을 묻고, 예산팀장이 주요 사립대학과 비교시 낮지 않은 수준으로 알고 있다고 하다. 올해는 여건이 어려워 시간강사료를 못 올렸지만 논문인센티브 등 여타 수준의 복지 향상으로 강사노조와 단협을 마무리했다고 하다.
- 박동희 평의원이 우리보다 높은 수준의 대학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대학은 주요 경쟁대학 비교해서는 최고 수준이라고 보며, 다만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일부의 인식은 국공립대의 시간강사료가 꾸준히 늘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하다.
- 안희준 평의원이 교원의 경우 오랜 기간 임금이 동결되었는데 시간강사료도 그러한가를 묻고, 예산팀장이 시간강사료는 많은 수치는 아니더라도 꾸준히 상승을 시켰다고 하다. 기초처장이 논문인센티브는 기존에 원래 있었는데 올해 더 확대했다고 하다.
- 김은상 평의원이 일전 회의에서 비전2030 관련 홍보물로 제안했던 것은 작은 인쇄물 제작을 말한 것은 아니고, 기념주화와 같이 작고도 간직할만한 형태의 물품으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의도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하다.
- 석창성 의장이 최종 결산이 아니라 추가 경정 예산까지도 대학평의회에서 자문을 구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문의하고 예산팀장이 관련법령이나 교육부 지침 등으로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이 점점 강화되고 있어서라고 하다.
- 석창성 의장이 추가 질문 사항이 더 없음을 확인하고, 16:40에 폐회를 선언하다.

붙임 제34차 대학평의원회 회의자료 1부. 끝.

|     |                                                                                   |     |                                                                                    |     |      |
|-----|-----------------------------------------------------------------------------------|-----|------------------------------------------------------------------------------------|-----|------|
| 안대회 |  | 안희준 |  | 정덕영 | <위임> |
| 석창성 |  | 김은상 |  |     |      |
| 박동희 |  | 김중환 | <위임>                                                                               |     |      |
| 강보라 |  | 심재용 |   |     |      |
| 전미희 | (인)                                                                               | 오광현 | <위임>                                                                               |     |      |